

ウォン建て送金の制限金額についてのご案内**お客様各位**

いつも当行を御利用いただき、大変有難うございます。

さて、現在私どもは約 10 年前から韓国ウォン建て送金を取り扱っており、お客様に大変ご好評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ウォン建て送金**は以下の通りに韓国の外国為替管理法によって送金目的別に制限金額があり、**制限は2万米ドル相当額**までとなっております。

<許可不要のウォン建て送金限度額>

送金目的	制限金額	備考
資本取引 (本人名義預金、貸借、投資等)	USD20,000 以下	金額により資金出処等確認が必要
経常取引 (貿易/役務取引等)	制限なし	但し、ウォン表示のインボイス/契約書等のエビデンスが必要

従って、当行では円ドル為替が90円台の水準で推移している間は、窓口での受付時の説明や自動送金カードの限度、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のご説明においてウォン建て送金の限度を2万米ドル相当額以下になるように日本円180万円を限度としてご説明してまいりましたが最近の円高の定着により、従来どおりに180万円を限度として送金されますと、2万ドル相当額を超えることになり、韓国側の受取銀行から受取りを拒否されるおそれが大きくなっております。

このため、お客様におかれましては円ドル為替が**83-85円台**の水準である現在においては送金目的が資本取引である場合、ウォン送金の限度額が180万円ではなく**160万円**で管理されている点をご承知置きくだ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同時に、現在の円高状況下で当行の自動送金専用口座（送金カード）や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をご利用なされて、韓国ウォン建て送金を従来のように180万円で取り組まれますと2万ドル相当額を超えることになり、「送金取組みの取り消し」や受取り遅延、送金分割等によりご不便をおかけするか、追加手数料等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事をご理解いただき、**160万円**を超えないようにお取引くださ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今後も継続して為替の推移を注視し、ウォン建て送金の制限金額の調整等が必要な場合はホームページ掲載等によりお客様へご案内を申し上げます。

本件に関してご質問がございましたら以下の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下さい。

2010年8月
韓国外換銀行 東京支店
在日代表 朱 在仲

円高에 따른 원화표시송금 금액 제한에 관한 안내말씀

고객님 여러분

항상 외환은행 재일지점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외환은행은 약 10년 전부터 한국원화표시 송금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많은 고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화표시송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송금 시에는 송금 금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송금목적	제한금액	비고
자본거래 (본인명의예금,대차,투자등)	USD20,000 상당액 이하	자금출처 등 확인 필요
경상거래 (무역,역무거래 등)	제한 없음	단,원화표시 인보이스,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따라서, 저희 은행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90 엔대 수준일 때는, 창구 접수시의 설명이나 자동송금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의 설명을 드릴 때에, 원화송금시의 한도액을 2만미불 상당액에 해당하는 180만엔을 한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최근 엔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전대로 180만엔을 원화표시로 송금하시면 2만미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한국측 수취은행으로부터 수취를 거부당할 염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고객님께서 엔/달러 환율이 **83-85 엔대** 인 현재로서는 원화송금의 목적이 자본거래일 경우, 원화송금한도가 180만엔이 아니고 시스템 관리상 **160만엔**으로 하향조정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엔고환율상황에서 자동송금전용계좌(송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셔서, 원화표시 송금을 종전처럼 180만엔으로 송금하시면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송금취소나 수취지연, 송금분할 등으로 불편을 입으시거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60만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엔/달러 환율추세를 주시하여 원화표시송금의 제한금액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고객님께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한국의환은행 동경지점
재일대표 주 재중